

The Way We Live May Convert the Heart of the Other

1. Slide 2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오늘 너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 히브리서 3장 8절-

Centering (마음 모으기)

- Silence: Quiet your mind (침묵: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 Relax: Be attentive to your body (이완: 당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Breathe: Breathe in the goodness, Breathe out the worry or sadness호흡: (선함을 들이마시고, 걱정이나 슬픔은 내쉬십시오.)
- Invite: Greet the Spirit within and among us (초대: 우리 내면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맞이하십시오.)

*"Your prayer is an expression of that faith which, according to the words of Jesus, moves mountains" (cf. Mt 17:20). Pope Leo XIV 4.11.26"

("여러분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마태오 복음서 17장 20절 참조). 교황 레오 14세, 2026년 4월 11일.)

2. Slide 3

"A Crumb of Faith" (부스러기만 한 믿음)

My dearest friends, all it takes is a little faith, a mere "crumb" of faith, in order to face this dramatic hour in history together—as humanity and alongside humanity. (친애하는 벗 여러분, 인류로서, 그리고 인류와 연대하여 역사의 이 극적인 시간을 함께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작은 믿음, 단지 부스러기만 한 믿음뿐입니다.)

Prayer is not a refuge in which to hide from our responsibilities, nor an anesthetic

to numb the pain provoked by so much injustice. (기도는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숨기 위한 피난처가 아니며, 수많은 불의가 불러온 고통을 마비시키는 마취제도 아닙니다.)

Rather, it is the most selfless, universal and transformative response to death: we are a people who are already risen! (오히려 기도는 죽음에 대한 가장 이타적이고 보편적이며 변혁적인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Within each of us, within every human being, the interior Teacher teaches peace, urges us toward encounter and inspires us to make supplication. (우리 각자의 내면에, 모든 인간의 내면에 계신 내적 스승께서는 평화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촉구하시며, 간청을 올리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Let us rise from the rubble! (이 잔해 속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Nothing can confine us to a predetermined fate, not even in this world where there never seem to be enough graves, for people continue to crucify one another and eliminate life, with no regard to justice and mercy. (정의와 자비를 무시한 채 사람들이 서로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말살하여 무덤이 결코 부족할 날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조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해진 운명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Pope Leo XIV delivered this homily during a prayer vigil for peace on the evening of April 11. (교황 레오 14세는 4월 11일 저녁, 평화를 위한 기도회 중에 이 강론을 전했습니다.)

3. Slide 4

“ Tend my sheep “(내 양들을 돌보아라)

When the world gets to be too much, when I see history repeating itself, I am deeply saddened. (세상이 감당하기 너무 버거워질 때, 그리고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볼 때, 저는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My faith may be shaken. (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My will to advocate is challenged. (누군가를 대변하고 옹호하려는 저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I am stunned by the violence and harmful actions of leaders, my brothers and sisters, and strangers; and I am ashamed when I recognize my own reactive responses or inaction. (지도자들, 나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낯선 이들이 행하는 폭력과 해로운 행동에 충격을 받으며, 이에 대한 제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무력한 방관을 깨달을 때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I remember Jesus asking Peter.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John 21:15-17요한복음 21장 15-17절

- First time: Jesus asks if Peter loves Him more than the others, and Peter says yes. Jesus tells him, "Feed my lambs" (첫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 Second time: Jesus asks again without comparison, Peter affirms his love, and Jesus says, "Tend my sheep".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과의 비교 없이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해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 Third time: Jesus asks a third time, which makes Peter sad. Peter replies that Jesus knows everything and knows he loves Him. Jesus tells him, "Feed my sheep".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물으시니 베드로는 슬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들을 돌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4. Slide 5

진복팔단 (마태 복음 5장 3-12)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Contemplation (take 5minutes)

- Rest in the Lord and imagine you are at the Sermon on the Mount. (주님 안에서 휴식하며, 당신이 산상설교 현장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 How is Jesus speaking to you?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 What are you feeling?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나요?)
- Is your heart hardened, or open? (당신의 마음은 완고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 How are you encouraged, moved, or called? (당신은 어떻게 격려를 받고, 마음이 움직이며, 혹은 부르심을 받고 있나요?)

5. Slide 6

Spiritual Conversation

- Brief sharing of thoughts, feelings and potential actions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짧은 나눔)
- Share your comments in chat or open conversation (채팅창이나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눔.)

6. Slide 7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Preach the Gospel at all times and when necessary, use words," reminding people that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언제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While often attributed to Saint Francis of Assisi, this core message reflects Pope Francis's frequent teachings on living a faithful, visible example of love. (이 핵심 메시지는 흔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말로 여겨지지만, 사랑을 성실하고 눈에 보이는 모범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거듭된 가르침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Expand our awareness and feel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십시오.
- Listen and discern the voice of our shepherd우리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식별하십시오.
- Ask for grace; strength, compassion and wisdom은총을 청하십시오. 곧 힘과 자비, 그리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 Show, Do Not Just Tell: Let your daily actions reflect your beliefs.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일상적인 행동이 당신의 신앙(신념)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 Be Kind to Others: Help people in need with a warm heart.타인에게 친절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도우십시오.
- Walk the Talk: Match your words with honest deeds.말한 대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정직한 행동과 일치시키십시오.
- Draw People In: Inspire others through peace and goodness.사람들의 마음을 이끄십시오: 평화와 선함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7. Slide 8

Closing Prayer :“The Summons” 부르심

The song "The Summons" by John Bell emphasizes responding to divine call through love, risk and service. (John Bell의 곡 "The Summons(부르심)"는 사랑과 위험 감수, 그리고 봉사를 통해 신성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It encourages leaving comfort zones, caring for others, and embodying faith in daily actions. (이 노래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 타인을 돌보고, 일상의 행동 속에서 신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격려합니다.)

The lyrics highlight personal growth, commitment, and following Jesus' footsteps, inspiring believers to live authentically in faith and compassion. (가사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조명하며, 신자들이 신앙과 자비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영감을 줍니다.)

<https://youtu.be/6FasN8fukrs?si=Ny8nllsbkOgOYCEN>

동중부KCLC 사도부